

보 도 자 료

(주)디엔에이링크



배포일	2018년 6월 1일		
보도일시	배포 직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유형진 부장	연락처	02-3153-1543

국내개발 신기술, 제주 4.3사건 유해 유전자 검사에 도입

디엔에이링크는 제주 4·3 사건 희생자 수만명 중 발굴된 279구 유해에 대한 유전자 분석을 통해 유가족을 찾아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본 계약은 제주 4·3 재단의 의뢰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과 이승덕 교수의 주관하에 유전체분석 전문업체인 (주)디엔에이링크(대표이사 이종은)가 분석을 맡고 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두번째로 4·3 기념식에 참여한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사 사죄와 청산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본 사업은 금년에 15억원의 예산을 1차적으로 편성하였고 이중 약 8.2억원이 이번 발굴유해 유전자 검사에 사용되었다.

이번에 검사가 진행되는 유해는 (주)디엔에이링크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신원확인용 단일 염기다형성(SNP) 검사 DNA 칩 (아큐아이디, AccuID®) 의 기술로 가능해졌다.

기존의 DNA 감식기술은 훼손된 유해에서의 감식이 힘들고, 개인의 식별, 친자관계 등 유전학적으로 1촌관계만 판별이 가능하므로 유해의 훼손이 심한 경우나 1촌간의 남은 유족마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하기가 불가능한 반면 디엔에이링크의 아큐아이디 (AccuID®) 기술은 훼손 정도가 심한 유해의 감식이 가능함은 물론 넓게는 3촌 관계까지 판별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기술이다.

종전시 6.25전사자 유해 및 이산가족 대상 유전자검사에 활용 가능

디엔에이링크 관계자는 금번 4·3사건 뿐만 아니라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에 적용 될 시 큰 성과를 낼수 있을 것이며, 본 기술이 형제 이상 삼촌 까지의 식별이 가능한 만큼, 남북관계 개선으로 인한 통일시대에 이산의 아픔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부수적으로 발생 할 수 밖에 없는 여러가지 토지, 재산등의 분쟁 해결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주)디엔에이링크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수십 수백만의 희생자를 낸 베트남전 유해 발굴사업, 이란.이라크 학살자 발굴 사업 등 해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을 모색할 예정이며 베트남 과학기술원과는 협의를 진행중이다.